

짧은 '손바닥 소설'에 담긴 다양한 시대상

30대 안팎 소설 모음집 '이해 없이 당분간' 화제

정용준·박솔피·한창훈 등 지역작가 작품 포함 22편

춧불정국 등 비판의식 담아



작가는 늘 절망과 희망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다. 혹자는 현재는 절망의 시대이면서 희망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온 작가들의 짧은 소설을 엮은 소설집이 출간돼 출판계 화제다.

독립출판사 '걷는사람'이 22명 작가의 30대 안팎의 짧은 소설을 엮은 '이해 없이 당분간'을 발간했다. '걷는사람'은 지난 탄핵정국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선집 '검은 시의 목록'을 펴내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작품에는오늘의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지역 출신 신예뿐 아니라 오수연, 이제하, 조해일 등 중견·원로 소설가들의 작품이 고루 포함돼 있다.

소설은 모두 30대 안팎의 짧은 분량의 작품이다. 보통 원고 분량이 70~80대인 소설을 단편이라고 한다. 이보다 짧은 형식의 작품을 출판계에서는 '콩트' 또는 '엽편(葉篇)소설'이라 부른다. 또는 손바닥 장(掌)자를 써서 장편(掌篇), '손바닥 소설'로 칭하기도 한다.

물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까지 콩트는 국내 문학에서 주류의 위치를 점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한국 소설은 장편(長篇), 중편, 단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짧은 형태의 '손바닥 소설'도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삶이 파편화 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보편적 추세로 자리잡는다.

'이해 없이 당분간'은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 춧불정국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장

면들이 많다. 작품집은 탄핵정국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작가들의 상상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문학의 지평도를 그려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김성규 출판사 '걷는 사람' 대표는 "최근 한국 소설은 소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뚜렷한 지평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정도로 개성적이다.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던 90년대 이후 최근 소설은 서사가 다소 강해진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냉소와 풍자의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집이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소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태어난 조선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정용준의 '다정한 유모', 장편소설 '울'과 소설집 '그럼 무얼 부르지'를 출간하며 김승옥문학상과 문지문학상을 수상한 박솔피의 '내 기억으로 나는'이 수록돼 있다.

또한 여수에서 태어나 중견 소설가로 개성적인 작품을 발표해온 한창훈의 '동식아', 순천 출신으로 제8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을 받았던 임현의 '이해 없이 당분간'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백가흠 소설가의 '취업을 시켜드립니다'도 담겨 있다.

이시백 소설가와 김이구 평론가는 기획의 말에서 "예술가는 각기 다른 감각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호응하며 발화하기도 한다"며 "여기에 실린 짧지만 힘찬 소설들이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따

뜻한 위로가 되길,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에게 뜨거운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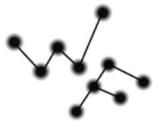
표제작 임현 작가의 '이해 없이 당분간'은 읽는 이에게 진진한 울림을 준다. 각자의 숨겨진 이유로 따로 또 함께 울고 있는 버스 기사와 승객의 이야기다. 여자 친구와 헤어진 남자가 어느 날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고 데이트했던 당시를 회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예전에 오갔던 노선대로 버스가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그것도 버스 기사가 울면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생각하느라 주인공도 우는데 말이다. 이 유인즉슨 버스가기도 똑같은 노선과 일상의 고통에서 이탈하고 싶은 때가 있기 때문이란단다.

이밖에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에게 사기를 치는 국가 권력의 모습(백가흠 '취업을 시켜드립니다'), 섬마을 동식아와의 대화를 통해 세대를 꼬집는 작품(한창훈, '동식아'), 현대인들이 가진 무관심과 신성함이 사라진 세계를 그린 소설(손보미, '계시'),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투표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김덕희, '배를 팔아먹는 나라') 등 오늘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도 읽을 만하다.

한편 평론가인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하나뿐인 진실은 얼마나 쾌적하며 거기에 이끌리는 나를 막아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럴 때 여러 작가들의 짧은 소설을 한꺼번에 읽어보는 일은 도움이 된다"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거침없이 페밍아웃



포스터 이미지 공모 9월20일까지

광주여성영화제 WOMEN'S FILM FESTIVAL IN GWANGJU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8회 광주여성영화제 포스터 이미지'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8회 광주여성영화제 캐치프레이즈 '지금, 페밍아웃!'을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광주여성영화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작업물이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지금, 페밍아웃!'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우리가 선 곳 그 자리에서, 당당하고 다양하게 외치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는 것은 일상의 변화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한 성차별적 상황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지금 시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접수기간은 9월20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9월25일이다. 당선작 1명(1팀)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http://cafe.daum.net/wffi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광주여성영화제 사무국 062-515-6560,010-3530-389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영학 작가와 함께 글쓰기 교실

광주성공회센터, 여성 수강생 선착순 모집

광주성공회센터가 지역 여성을 위한 무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한다.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7시~9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센터(화성 회관 건물 3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총 15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극작가 겸 조선대 교수인 김영학(사진)씨가 강사로 나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강의한다.

강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9월 4일까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30명. 문의 010-5642-926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프리카 리듬에 챔스필드 들썩... "25~26일 '월페' 오세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ACC)은 지난 19일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관람객들에게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사했다.

ACC는기아타이거즈와 SK와이브스 경기가 열리기 전 아프리카 음악을 다루는 9인조 혼성 타악밴드인 아토의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 이번 행사는 '2017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월페)'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특별 공연으로 준비됐다.

또 ACC 어린이문화원의 공식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관람객 참여 이벤트도 이어졌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은 '2017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25~26일 ACC에서 개최된다. 킹 아이소바, 혁오, 파코 렌테리아, 손 카리베, 김주홍과 노름마치, 아마디이자람밴드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음악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여성 마을활동가 교육

9월5일~27일까지

"마을활동가를 꿈꾸는 여성들 모여세요."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엄미봉)은 오는 9월5일부터 27일까지 '2017년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화·목요일 주 2회(오전 10~12시)씩 6일간 진행되며, 이후 1박2일 선진지 탐방도 실시한다.

5일 '마을에 사는 나'를 시작으로 교육이 펼쳐지며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마을에 사는 우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서구(영의춘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남구(민문식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북구(임

선이 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꾸릴 예정이다.

이어 ▲'히스토리&히스토리'(12월 김경례 전남대 사회경제생산연구단 학술연구 교수) ▲'여성, 마을 어디까지 해봤니?'(14일 조이현임 풀뿌리여성센터 바랑대표) 등의 강의를 진행된다.

교육비(선진지 견학참가비 별도) 2만 원. 접수는 교육기간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70-05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경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원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토지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정 원로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공장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노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